

大學修學能力試驗의 評價영역과 出題방향

李 鍾 昇
(忠南大 教育學科)

1. 大學修學能力試驗의 概念과 性格

최근 教育部가 확정 발표한 대학 입학 시험 제도 개선안의 기본 골격은 '고등학교 내신성적'의 평가 영역과 반영 비율을 확대하여 40% 이상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행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3과목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대학 입시 개선안의 내용 중 본고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에 국한하여 이 시험의 개념과 성격, 측정 영역별 평가 내용과 출제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되, 이론적인 논의는 피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이 시험의 구체적 實體를 소개하고자 한다.

처음에는 '大學教育適性試驗'의 명칭으로 등장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던 이 시험은 이제 '大學修學能力試驗'이라고 그 이름이 변경되어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전형 자료의 하나로 쓰일 전망이다. 대학교육적성시험이라는 용어는 教育改革審議會의 보고서에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교육개혁심의회는 그 최종 보고서에서 현행 대학 입시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1990년대 초반부터는 개별 대학이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입학 전형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학 입시 제도의 단계적 자율화를 위한 개혁 구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교육개혁심의회, 1987, pp. 204~205).

가) 대학 입학의 전형 자료는 과도적으로 현행의 학력고사, 고교 내신 성적, 체력장을 주된 자료로 활용하되 면접의 점수와 결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화 단계에서는 개별 대학이 학생 선발의 준거로서 고등학교, 대학, 제3의 기구 또는 정부 기관 등이 실시한 전문적인 평가 결과를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형 자료를 다양화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 고사, 실기고사, 구술고사, 면접법 등의 독자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게 한다.

나) 1990년대 초반까지 객관식 중심의 학력고사는 '대학교육적성시험'으로 발전시키며, 주관식 중심의 학력고사는 대학별 평가로 발전시킨다.

이상과 같은 교육개혁심의회 제안에 기초하여 교육부 당국에서는 대학 입학 시험 제도의 개선 작업을 추진하여 왔는 바, 개선안으로 내놓은 대학 입시 제도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대학교육적성시험, 즉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 시험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그동안 이 시험의 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와 논의가 여러 학

자들에 의하여 시도되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黃濬奎(1988)는 중앙교육평가원의 의뢰로 수행한 대학교육적성시험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 대학교육적성시험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구체화시켰다. 그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의 성격을 교과목 내용의 성취를 직접 측정하는 수준과 일반 교육적 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것 사이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검사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시험의 측정 영역으로 言語·數理·社會·科學의 네 가지 영역을 제안하였다. 중앙교육평가원에서는 이러한 모형을 토대로 하여 언어 영역(李鍾昇·金光海, 1989), 사회 영역(韓冕熙, 1989), 수리 영역(李鍾昇·姜鳳奎, 1989), 과학 영역(權鈞, 1989)의 평가 목표와 문항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하였다.

李鍾昇(1989, p. 27)은 교육평가연구회의 학술 발표 논문을 통하여 '대학교육적성시험이란 대학 수학에 기초 공통으로 요구되는 학업 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특정 교과목의 내용에 구애받음 없이 학교 내·외의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습득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외국어(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객관식 형태의 시험'이라고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내포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학교육적성시험에서 측정하는 능력은 대학의 각 학문 계열이나 전공 분야에 따른 특수 적성이 아니라 대학 수학에 기초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보편적 능력으로서의 학업 적성이어야 한다. 둘째로 대학교육적성시험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측정하기보다는 학교 내·외의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습득된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어야 한다. 셋째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실정으로 볼 때, 대학 수학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어로서의 언어 능력과 일반적인 수리 능력 이외에 외국어로서의 영어 능력이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현실에 비추어 이 시험의 측정 내용은 크게 언어·수리·영어의 세 가지 영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대학교육적성시험의 출제 내용이나 시험에 이용되는 자료는 특정 교과목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범교과적·탈교과적 성격을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朴道淳 등(1989, pp. 38~39)은 교육부가 위촉한 대입 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에서 황정규와 이종승이 제안한 대학교육적성 시험의 개념을 토대로 이 시험의 개념과 성격을 정립하였다. 박도순 연구팀이 규정한 대학교육적성시험의 개념은 그후 몇 차례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教育政策諮問會議·中央教育審議會·大學教育審議會 등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전된 학력고사'의 성격을 띠도록 조정되었다. 그리하여 최근에 확정 발표된 개선안(朴道淳, 1991)에 의하면, 이 시험의 명칭을 大學修學能力試驗으로 바꾸면서 그 개념을 '대학교육 수학에 필요한 학업 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통합교과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추어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험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수학에 기초가 되고 공통적인 보편적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대학의 각 학문 계열이나 전공 분야에 따른 특수 적성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다. 다시 말하여, 이 시험은 대학의 각 학문 계열이나 전공 분야에서 요구되는 특수 적성(예컨대, 문학적성·음악적성·기계적성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의 원만한 수학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초 공통적인 일반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것이다.

② 이 시험은 학교교육의 경험을 통하여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적성검사와는 다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수한 지적 능력이나 어떤 재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등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았을 때 장기간의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습득된 학업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③ 이 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 출제되는 사고력 중심의 학력고사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범위와 수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알맞도록 출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내에만 한정하지 않고 교과서 밖에서도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그리고 가급적

단순 지식의 측정은 피하고 주어진 문제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분석·종합하는 고차적 정신 기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④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되는 시험으로서 특정 교과별 시험과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언어 영역과 수리·탐구 영역의 시험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교과목의 소재를 골고루 활용하여 출제되는 범교과적 또는 통합교과적 시험으로서 어느 한 교과목의 소재만을 이용하는 '국어 시험'이나 '수학 시험' 등과 같은 교과별 시험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 영역은 종래의 대입 학력고사에서처럼 교과목별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측정 영역별로 분류하여 言語領域, 數理·探究領域, 外國語(영어) 領域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각 영역별 평가 내용과 출제 방향을 소개하고 예시 문항을 <附錄>에 제시한다. 이 예시 문항들은 중앙교육평가원에서 1차 실험평가 연구를 위하여 1990년 12월에 고교 2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하였던 문제의 일부이다.

2. 言語領域의 評價內容과 出題方向

언어 영역에서는 ①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용도를 적절히 구분하는 능력, ② 비교적 긴 문장에 대한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이해력, ③ 단어 간의 관계를 유추하고 귀납적 또는 연역적으로 추리할 수 있는 능력 등 대학교육을 이수하는 데 요구되는 언어 능력을 측정한다.

이 시험에서는 국어 교과 고유의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언어에 관련된 일반적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언어 영역의 구체적인 평가 내용과 출제 방향은 다음과 같다(李鍾昇 외, 1990).

1) 評價內容

① 語彙力

어휘란 단어들의 집합을 말한다. 그리고 어휘에 대한 지식 및 기능은 인간의 언어 능력의 기

본적인 자산이다. 따라서 한 학생이 얼마나 많은 단어를 바르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의 언어 능력 평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 된다.

ㄱ. 단어의 이해

- 기본적인 어휘의 양
- 단어 의미의 정확한 이해
- 기초적인 한자들의 이해

ㄴ. 단어들 사이의 연관성 이해

- 단어들 사이의 類意關係 이해
- 단어들 사이의 反意關係 이해
- 단어의 多意의인 속성 이해

ㄷ. 속어적 표현에 대한 이해

- 속어의 의미 이해
- 속담, 四字成語 등의 의미 이해

② 設解力

문장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한 단위의 텍스트를 원만히 이해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해 능력은 전통적으로 언어 능력의 중심을 이루는 능력으로 취급되어 왔다. 실제로 이 능력은 더 작은 많은 하위 능력이 종합적으로 구조화된 후에 비로소 형성되는 능력으로서 언어 능력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독해력의 세부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ㄱ. 문장의 事實的 理解

- 문장의 핵심 내용을 찾기
- 문장에 전개된 사건의 확인
- 문장에 나타난 정보의 확인

ㄴ. 문장의 推論的 理解

- 문장에 나타난 사실을 다른 상황에 적용
- 예문을 바탕으로 한 결론의 유도 및 원리 파악
- 문장에 전개된 사건들의 관계 인식
- 문장에 숨겨져 있는 가정이나 전제의 파악

ㄷ. 문장의 批判的 理解

- 글의 동기, 목적 이해 및 구조 파악
- 주제에 관한 필자의 태도 파악
- 內的 準據에 의거한 판단
- 外的 準據에 의거한 판단

③ 言語 推理力

여기서는 언어를 수단으로 삼아 논리적인 사고를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자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들이 언어 자체에 관한 지식과 언어를 통한 내용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나타나는 언어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이 부분에서는 사고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로서 언어를 다루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ㄱ. 언어 유추

- 단어나 개념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 원칙에 따라 파악하기

ㄴ. 귀납적 추리

- 특수한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 도출

ㄷ. 연역적 추리

- 보편적인 원리나 전제로부터 특수한 원리나 사실 도출

2) 出題方向

① 언어 영역의 시험은 종래 학력고사의 '國語' 시험에서 중심을 이루던 내용인 국어의 전문적인 지식, 예컨대 국문학 이론, 국문학사, 문법 등의 지식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② 언어 영역의 평가를 위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교과목의 글이 가능한 한 고루 포함되도록 한다. 이를 분야별로 나누면 인문·사회·과학·예술·기타의 다섯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평가를 위한 제재를 설명문, 논설문, 기행문 등과 같이 글의 종류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③ 이 시험은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도 긴밀히 연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험의 자료가 될 수 있는 문장의 출처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교과서들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수준높은 문항의 출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④ 독해력 평가의 지문은 교과서 내·외에서 취하되, 인문·사회·자연·예술 등의 전 영역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도록 제재를 취한다. 또한 지문의 길이는 글이나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되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각 영역별 지문에서 무심코 포함하기 쉬운 전문적 지식에 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사고력이나 고등 정신 기능의 평가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한다. 채택한 지문의 30% 정도에서 漢字를 적절히 노출시킨다.

3. 數理·探究領域의 評價內容과 出題方向

수리·탐구 영역의 시험에서는 ① 수리 및 탐구의 기초적 개념에 대한 이해력, ② 주어진 수리 및 탐구 자료나 정보를 바르게 해석하고 추리하는 능력, ③ 주어진 자료에 원리나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 대학교육을 이수하는 데 요구되는 수리 및 탐구 능력을 측정한다. 수리·탐구 영역은 다시 수리 영역, 탐구 영역 A(과학 분야), 탐구 영역 B(사회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영역의 구체적인 평가 내용과 출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金亨立 외, 1990).

1) 評價內容

① 數理領域

ㄱ. 代數

- 수와 식, 집합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 연산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 식을 처리하는 기능에 숙달하였는가
- 행렬의 뜻을 알고 연산을 할 수 있는가
- 행렬을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가

ㄴ. 解析

-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성질을 아는가
- 다항함수의 미분, 적분을 할 수 있는가
-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이용하여 도형의 넓이나 부피 등을 구할 수 있는가
- 수열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 수열의 극한과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가

㉔. 幾何

- 명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 좌표의 개념을 이해하는가
- 직선, 원, 포물선의 방정식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는가
- 도형의 이동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 부등식의 영역을 구할 수 있는가

㉕. 確率·統計

- 순열, 조합의 개념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는가
- 확률의 개념을 알고 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가
- 분포의 개념을 이해하고 표준편차 등 통계치를 구할 수 있는가
- 표본, 추정, 검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② 探究領域(A)

㉑. 科學問題의 포착과 정보 수집

- 과학적 문제 포착, 문제 설정, 가설 형성
- 문제 해결 방안 강구
- 정보 수집, 정리, 신뢰도 추구 등

㉒. 觀察實驗의 계획과 자료 수집

- 문제 인식, 가설 설정, 조작적 정의, 변인 통제
- 실험 고안, 실험 기구와 자료의 선정
- 실험 안전 방안, 공해 방지 강구
- 관찰, 어림, 측정, 기구 장치 사용
- 자료 수집, 분류, 정확도와 정밀도 추구 등

㉓. 資料나 情報의 이용과 분석

- 기호와 도표 및 그래프 읽기와 사용
- 자료나 정보 선택, 비교, 변형, 처리
- 내삽, 외삽, 예측 등

㉔. 資料나 情報의 종합과 문제 해결

- 추리(귀납, 연역 등)
- 정성적 관계 파악, 일반화, 종합, 결론, 요약
- 정량적 관계 파악, 정량적 처리, 상관 관계
- 인과관계적 설명, 모형 구상 등

㉕. 檢證과 評價

- 타당도와 신뢰도 추구
- 가설 검증, 증거평가, 결과평가, 종합적인

판단 등

③ 探究領域(B)

㉑. 社會問題의 認識技能

- 주어진 자료 속에 나타나는 사회 문제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지적하며,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등의 능력

㉒. 社會問題의 解決을 위한 假說設定 및 探索技能

- 주어진 자료에 의하여 제기되는 사회 문제나 사회 사태에 직면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설명이나 예측을 위한 법칙과 원리 등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논리적 사고를 통하여 정당화하는 등의 능력

㉓. 情報 혹은 證據의 蒐集技能

-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설정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찾고 자료를 검토하고 조직할 수 있는 능력

㉔. 假說檢證 혹은 結果 導出技能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설정된 가설을 믿을 만한 증거에 따라 수용할 것인가 혹은 부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능력

㉕. 社會價値問題의 把握技能

- 주어진 자료에서 제기되는 가치 문제, 특히 가치 갈등 상황 속에서 의사 결정 문제와 관련된 가치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혀 낼 수 있는 능력

㉖. 선택한 價値의 타당한 根據 事實 檢査技能

- 주어진 자료에서 제기되는 가치 문제에서 자신이 선택한 가치로 야기될 수 있는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제시할 수 있는 능력

㉗. 價値判斷의 原則에 대한 檢査技能

- 주어진 자료에서 제기되는 가치 문제에서 가치 판단의 원칙의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2) 出題方向

- ① 數理領域의 문항 출제에서는 문제 파악에서부터 해결까지 문제 해결의 전체 과정에 관한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수하고 어려운 개념이나 원리보다는 대다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필수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이용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이것은 수리 시험이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대학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보편적 능력으로서의 수리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학생들이 교실 수업에서 다루어 본 익숙한 문제보다는 가급적 생소한 실제적 문제 사태를 제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② 探究領域(A)의 시험에서는 과학 탐구의 전체 과정을 포괄하는 문제를 출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탐구 과정의 단계적 기능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가능한 단계적 기능으로는 문제 파악, 실험 및 자료 수집 계획, 가설 설정, 자료 해석,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 결과 평가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들 단계적 기능을 하나 하나 측정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여러 개의 단계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내고, 내용 영역은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으로 하여 가급적 두 개 이상의 내용 영역을 포괄하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특수하고 어려운 개념이나 원리보다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필수적 개념이나 원리를 적용하여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도록 한다.

③ 探究領域(B)의 시험에서도 탐구의 전체 과정을 하나의 문제로 측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탐구의 단계적 기능을 측정하는 문제를 출제하되 가능하면 몇 개의 단계적 탐구 기능을 복합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을 제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과학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탐구 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일반사회·역사·지리의 내용 영역에서 사회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국민윤리의 내용 영역에서 사회 가치를 탐구하는 과정이다. 사회 지식 탐구의 단계적 기능은 문제 파악, 가설 설정, 자료 해석,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 등이고, 가치 탐구의 단계적 기능은 문제 파악, 가치 선택, 사실 근거 평가, 가치 판단 등으로 볼 수 있다.

4. 外國語(英語)領域의 評價內容과 出題方向

외국어 영역에서는 ① 단어와 속어에 대한 지식, ② 문장의 구조 문제나 표현 문제에 관한 영문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③ 비교적 긴 영어 문장에 대한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이해력 등 대학교육을 이수하는 데 요구되는 영어 능력을 측정한다. 이것은 대체로 영어 교과에 관한 학력 중심의 고사이다. 외국어 영역의 보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과 출제 방향은 다음과 같다(張錫祐·金德起, 1990).

1) 評價內容

① 어휘

어휘력 시험의 목표는 의사 소통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어휘 및 속어의 이해력을 측정하는데 있다. 따라서 문장이나 문맥 없이 단어만이 독립적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어휘력을 측정하는 것은 지양한다.

② 문법

문법 시험은 어미 변화로부터 구문까지의 의사 소통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법 능력의 측정을 목표로 한다. 시험 내용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거나 예외적인 문법 지식을 측정하는 것은 피하고, 의사 소통 능력에 활용되는 필수적이며 중요한 문법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③ 읽기(독해)

읽기 평가는 글의 줄거리, 요지, 주제, 내용 등의 파악에 중점을 두어 평가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세부 내용 파악, 중심 사상 및 주제 파악, 논리적 결론 및 전·후의 내용 추론, 작가의 어조 유추, 속독 능력 등의 고차적인 인지 언어 능력의 측정을 목표로 한다.

④ 듣기(청해)

듣기 평가는 의미 파악 및 청취 내용의 기억 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발음 식별력(연음현상 이해 포함), 억양 및 강세 이해, 구어의 특징 이해, 세부 내용 파악 능력, 중심 사상 파악 능력의 측정을 목표로 한다.

⑤ 쓰기(작문)

쓰기 평가는 정확한 구문을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는 취지에서 통제 작문의 형태로 어휘력, 문법 실력(구문력), 사회언어학적 표현의 적합성 등을 측정 목표로 한다.

2) 出題方向

① 영어를 통한 의사 소통 능력의 평가를 강조하고, 정상적인 중등 영어교육을 위하여 듣기 능력의 평가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② 문법적인 면을 다루는 독해 시험의 유형에서 벗어나 TOEFL 에서처럼 내용의 종합적인 분석과 이해를 중시하는 고차적인 언어 인지 응용 능력을 측정하는 다양한 내용의 독해 시험이 되도록 한다. 언어학을 전공하지 않는 수험자들에게 불필요한 문법 용어의 지식이 요구되거나 지엽적이며 단편적인 문법 지식이 측정되는 것은 피한다.

③ 음성 언어의 표현력을 필기 시험으로 평가한다는 데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많은 제약과 무리가 따른다. 현행 대입 학력고사의 지필고사시 발음 문제는 실제 발음 능력과는 관계 없이 암기를 통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으며, 정확한 발음의 교육과는 유리된 기계적인 암기식 교육을 조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눈으로 보는 죽은 발음을 외우지 않고, 귀로 듣는 살아 있는 발음을 공부하도록 정해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④ 언어 사용상 어휘는 고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이 주어진 문장 내에서 사용될 때 그 의미가 명확히 정해지는 것이므로 어휘력의 독립적(문맥 외적) 평가를 지양하고 TOEFL 이나 Cambridge Proficiency Test 에서처럼 최소한의 문맥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어휘력을 측정하도록 한다.

5. 大學修學能力試驗에 대한 批判 및 解決課題

이상에 기술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 영역과 출제 방향에 따라 중앙교육평가원에서는 시험 문항을 개발하여 전국의 30 개 고등학교에서

표집한 약 1,600 명의 고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말 1차 실험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金鐵連 외, 1990). 이번에 실시된 시험 문항의 의견상 특징은 객관식 문항의 경우 모두 5지 택일형이라는 점과, 영어 시험에 종래의 학력고사에서는 볼 수 없는 청해(듣기) 문항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실험평가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수학능력시험의 세 영역 성적과 학업 성적에 따른 석차 간의 상관 계수는 0.56~0.69 정도로서 새로 개발된 이 시험이 비교적 높은 共同度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른 학생들 중 약 7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들은 현행 학력고사의 문항 형식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다르다고 보고 시험 공부를 위한 방법이 종전과는 달라져야 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80% 이상이 이번에 실시된 시험 문항들이 학교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교육 목표와 부합되고,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판단하며, 고교의 수업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반응하였다. 중앙교육평가원은 이러한 실험평가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학교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이룩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며,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학업 적성을 측정하는 타당한 시험이라고 조심스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시험의 실시에 대한 批判의 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는 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들에게 기초 연구를 의뢰하고 수차례 걸친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중앙교육심의회, 교육정책자문회의, 대학교육심의회, 당정협의회 등등 각종의 자문 기구나 심의회 또는 협의회에서 제각기 다른 입장과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여러 차례의 修正과 補充을 거듭하는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지난 4월 2일 마침내 개선안을 확정하여 공포하였으나, 그동안 여론 수렴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몇 가지 쟁점들에 관해서는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일단락을 지은 것이다. 여하튼

이 시험에 대하여 제기된 주요 비판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험의 概念과 性格에 관한 문제이다. 처음에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이라는 생경한 명칭으로 소개된 이 시험은 그 개념과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자의 처한 입장이나 견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었으며, '適性'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그 명칭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변경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이 시험에서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둘째, 이 시험의 必要性과 實施方式에 관한 문제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공청회에서 이 시험의 실시 회수와 입시 준거 자료로서의 채택 여부 및 반영 비율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학부도 측은 수험생에게 가급적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에 따라 이 시험을 최소한 2회 이상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데 비하여, 대부분의 대학 측에서는 1회 실시를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다. 그 까닭은 이 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과거의 소위 先試驗後志願制로 되돌아 가게 되어 대학의 서열화 문제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시험의 반영 비율이나 채택 여부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면 최소한의 반영 의무조차 부과하지 않는 시험을 구테여 국가가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들여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셋째, 이 시험을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副作用에 관한 문제이다. 만약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개선안에 제시된 대로 범교과적 또는 탈교과적으로 출제된다면, 교과서의 공부단으로는 부족하므로 학생들은 현행 교과 공부는 그대로 하면서 수학능력시험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해야 하므로 학습 부담이 감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새롭게 부과되는 학습 부담감은 새로운 과의 목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

는 3개 영역에 대한 수학능력시험은 기본적으로는 국어·수학·영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이 국·영·수 교과에 더욱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려면 그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黃頌奎(1990)는 이 점에 대하여 出題節次와 開項製作에 관련된 문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으로 나누어 논의한 바 있다. 철저한 선행 연구나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시간에 쫓기고 명분에 이끌리어 졸속으로 처리하게 되면 미처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을 수반하게 되어 결국은 改善한다는 것이 오히려 改惡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어떤 제도나 사안에 대한 개혁이 또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러한 개혁을 하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개혁을 한 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언제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개혁에는 또다른 부작용과 혼란이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대학 입시 제도 하에서 수학능력시험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는 바, 그중에서도 시급한 과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여론 수렴 과정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 중의 하나가 이 시험의 概念과 性格이 모호하다는 지적이었다.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수행한 기초 연구와 실험평가연구를 통하여 이 시험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 성격이 확실치 않으며 문항 개발도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領域別 配點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개인별 得點의 表示方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시험의 실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확정된 대학 입시 개선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학능력시험에 연간 2회 응시해서 그중 좋은 성적을 지망 대학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상호 시기를 달리하여 실시되는 시험 문항의 난이도와 수경 집단의 특성이 동일하지 않음으로써 두 고사의 득점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橋梁問項(bridge items)을 활용하여 尺度의 等式化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량 문항이란 서로 다른 두 고사의 득점을 같은 척도 위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두 고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동일한 문항들을 말한다. 교량 문항법을 사용하여 척도간 등식화를 하면 당해 연도의 개인별 득점을 의미있게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 장기적인 학력의 변화 추이를 짐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③ 질적으로 우수한 문항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려면 현행 대입 학력고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출제 방식을 지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출제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심리적으로나 전문적으로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교수들을 갑자기 소집하여 단기간에 문항 출제를 강요하는 방식으로서는 그들이 비록 각 분야의 전문가이고 이 시험의 취지를 아무리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우수한 문항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問題銀行을 설치하여 두고, 이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의 시험 문제를 제작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④ 良質의 문항 개발을 위한 專門人力의 확보 내지는 양성 문제가 시급하다고 본다. 이 시험의 시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수준높은 시험 문항의 개발이며 이것이 곧 이 시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수학

능력시험의 문항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란 현재 매우 제한적인 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 인력은 단시일에 확보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절실하다. *

〈參考文獻〉

教育改革審議會, 「教育改革 綜合構想(최종보고서Ⅱ)」, 교육개혁심의회, 1987.
 樞 鈞, 「大學教育適性試驗 問項開發研究(과학영역)」, 중앙교육평가원, 1989.
 金鐵蓮 외, 「大學教育適性試驗 實驗評價研究」, 중앙교육평가원, 1990.
 金宇立 외, 「大學教育適性試驗 實驗評價研究(수리·탐구영역)」, 중앙교육평가원, 1990.
 朴道淳, 「大學入學試驗制度 改善案」, 대학교육심의회 공청회 자료, 1991.
 _____ 외, 「大學入學試驗制度 改善方案研究」,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李鍾祥·姜鳳奎, 「大學教育適性試驗 問項開發研究(수리영역)」, 중앙교육평가원, 1989.
 李鍾祥, 「大學教育適性試驗의 概念化」, 「교육평가연구」, 3권 2호, 한국교육학회 교육평가연구회, 1989, pp.17~39.
 _____·金光海, 「大學教育適性試驗 問項開發研究(언어영역)」, 중앙교육평가원, 1989.
 李鍾祥 외, 「大學教育適性試驗 實驗評價研究(언어영역)」, 중앙교육평가원, 1990.
 張錫赫·金德起, 「大學教育適性試驗 實驗評價研究(외국어영역)」, 중앙교육평가원, 1990.
 韓冕熙, 「大學教育適性試驗 問項開發研究(사회영역)」, 중앙교육평가원, 1989.
 黃積奎, 「大學教育適性試驗 開發을 위한 基礎研究」, 중앙교육평가원, 1988.
 _____, 「大學教育適性試驗 實驗評價研究(개념정립과 실시방형)」, 중앙교육평가원, 1990.

〈附 錄〉

언어영역의 예시 문항

* 다음 글의 ()속에 가장 알맞은 낱말은?
 1. 역사가 ()하는 것이라면 오늘날과 유사한 사회 현상은 지난 날의 인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

을 것이다.
 ① 變化 ② 循環 ③ 進歩
 ④ 興亡 ⑤ 發達
 * 다음에서 그 의미가 나머지 네 개와 원치히 다른 것은?

- ① $a+b \equiv a-b$
- ② $a-b \equiv (a-1)(b-1)$
- ③ $a+b \equiv (a+1)(b+1)$
- ④ $2a+1 \equiv 3b+1$
- ⑤ $a+b \equiv (a-1)(b-1)$

2. 두 미지수 x, y 에 관한 연립방정식

$$\begin{cases} 4x+3y=kx \\ x+2y=ky \end{cases}$$

에 대하여, 다음 덩치 중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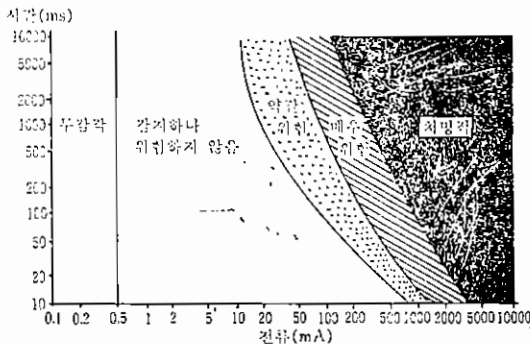
- ① $k=0$ 일 때, 위의 연립방정식은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진다.
- ② $k=1$ 일 때, 위의 연립방정식은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진다.
- ③ $k=1$ 일 때, 위의 연립방정식의 해는 $x=0, y=0$ 뿐이다.
- ④ k 의 값에 관계 없이 위의 연립방정식의 해는 $x=0, y=0$ 뿐이다.
- ⑤ k 의 값에 관계 없이 위의 연립방정식의 해는 없다.

* 평면 위에서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직선을 그어서 평면을 분할하려고 한다.

3. k 개의 직선이 이미 그어져 있을 때, 한 직선을 더 그으면 몇 개의 분할이 더 생기는가? 단, $k \geq 2$

- ① 1 ② 2 ③ k
- ④ $k+1$ ⑤ $k+2$

[4~5] 아래 그래프는 외부로부터 우리 몸에 흐르는 전류와 위험한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라.



4. 위의 그래프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같은 세기의 전류라도 흘리는 시간에 따라 위험한 정도가 다르다.
- ② 9mA 이하의 전류는 아무리 오랫동안 몸에 흘려도 위험하지 않다.

- ③ 500mA 이하의 전류는 위험하지 않다.
- ④ 위험한 정도는 전류의 세기에 정비례한다.
- ⑤ 어떤 세기의 전류이든지 오랫동안 흘리면 모두 위험하다.

5. 사람 체내에 전류를 흘려서 병을 치료하는 의료용 기구가 있다. 이 기구는 전류가 200mA 이상이 되면, 인체에 전혀 위험하지 않도록 어떤 시간 이내에 전류가 차단되게 설계되어 있다. 그 시간은 대략 몇 ms 이겠는가?

- ① 10 ② 30 ③ 100
- ④ 300 ⑤ 2000

* 전기를 이용하여 음식을 익히는 어떤 전기오븐의 설명서에 다음과 같은 표가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라.

쇠고기의 양(kg)*	오븐 내부 온도(°C)	익히는 시간(분)
1.5	180	60
3.0	160	140

* 쇠고기는 각각 1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경우임.

6. 이 설명서에서 두 경우 같은 온도 하에서 익히는 시간을 제시하지 않고 3.0kg 인 경우에 더 낮은 온도(160°C)에서 익히는 시간을 제시한 이유는?

- ① 쇠고기 표면과 속의 온도차를 적게 하기 위해서
- ② 많은 양의 [쇠고기는 낮은 온도에서 쉽게 익기 때문
- ③ 쇠고기의 열 전도율이 매우 크기 때문
- ④ 전기 오븐 내부에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 ⑤ 전기 오븐 내부에 쇠고기가 차지하고 남은 공간이 적기 때문

7. <보기>가 제시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의 이점을 고려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보 기>

- ㄱ. 사유 재산권이 인정되어 소유주가 재산을 관리 보호한다.
- ㄴ. 이윤동기는 생산자들의 생산의욕을 자극한다.
- ㄷ. 자유로운 경쟁으로 인해 각자의 재능이 최대한 발휘된다.
- ㄹ. 노력의 대가(代價)가 자기에게 돌아오므로,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된다.

- ① 자유시장 경제는 국부(國富)를 증진시키는 경제 체제이다.
- ② 자유시장 경제는 생산자를 보호하는 경제 체제이다.
- ③ 자유시장 경제는 복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자극

하는 경제 체제이다.

- ④ 자유시장 경제는 소득 분배의 균등을 가져 오는 경제 체제이다.
- ⑤ 자유시장 경제는 독·과점을 방지하는 경제 체제이다.

외국어(영어) 영역의 예시 문항

1. 다음 말을 듣고 그 뜻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라 (이 문항은 '듣기능력' 평가 문제로서 녹음된 대화나 설명을 듣고 난 후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 ① I failed to test the dish.
 - ② I tried to test the dish.
 - ③ I succeeded in the exam this year.
 - ④ The test of the dish is over.
 - ⑤ I took the in the past.
2. 다음 글의 ()에 알맞은 것은?

Albert Ostman didn't know what to think one morning when he got out of his sleeping bag. Things were not as the young man had left them the night before. Had a wild animal been looking for food? A bear? Or a family of squirrels?

When Albert Ostman woke up, he discovered that().

- ① his camp had been disturbed
- ② wild animals had visited his camp
- ③ someone had tried to attack him
- ④ hungry animals had been looking for food
- ⑤ a young man had been there to look for him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I have a special rule for travel: (가). I prefer to ask for directions. Sometimes I get lost, but I usually have a good time. I can practice a new language, meet new people and learn new customs. And I find out about different styles of directions every time I ask, "How can I get to the bank?" For example, people in Japan will say, "Go straight down to the corner. Turn left at the big hotel and go past a supermarket. The bank is across from the bus stop." People in Los Angeles have no idea of distance on the map, so they measure distance

(나).

They will answer, "It's about five minutes from here." If you ask people in Los Angeles, "How many miles away is the bank?", they will probably say, "I don't know." People in Greece will say, "Follow me." Then he will lead you through the streets of the city to the bank.

3. 뒷글의 (가)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lways carry a map
 - ② never carry a map
 - ③ travel for learning
 - ④ travel by bus
 - ⑤ ask for money
4. 뒷글의 (나)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in time
 - ② in miles
 - ③ by using maps
 - ④ neither intime, nor in miles
 - ⑤ not only in time, but also in miles
5. 뒷글의 내용으로 보아 필자가 여행 중에 경험한 것은?
- ① The writer gave directions to other foreigners.
 - ② The writer led Greeks to Los Angeles in America.
 - ③ The writer could not understand the traffic rules in Japan.
 - ④ The writer sometimes lost his way in other countries.
 - ⑤ The writer had a hard time learning new customs.
- * 밑줄 친 ①~④ 중 어법상 잘못된 것을 고르되, 잘못된 것이 없으면 ⑤를 고르라.
6. The important thing of you to learn is to speak in a way that fits the time and the place and the people to whom you are speaking. No error.
- ①
 - ②
 - ③
 - ④
 - ⑤
7. 다음 중 어법상 바른 것은?
- ① The bank closes in itself at one o'clock.
 - ② He lay the book on the desk and went out.
 - ③ The new bridge is completing in April.
 - ④ The hurricane striked the east coast.
 - ⑤ I move that the meeting be put off.